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

: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Style and Preschoolers' Conscience

: The Moderating Role of Fearfulnes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조은영**

교수 도현심***

연구교수 김민정

Dept. of Child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Cho, Eun-Young

Professor : Doh, Hyun-Sim

Research Professor : Kim, Min-Jung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fearfulnes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discipline styles and preschoolers' conscience. It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styles and consci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fearfulness and conscience. A sample of 250 parents of children aged between three and six (126 boys and 124 girl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on parental discipline style, preschoolers' conscience, and their fearfulnes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young children displayed greater actions of reparation and apology when mothers did not neglect and practiced reasoning. The more coercive punishment mothers practiced, the less internalized conduct children showed. In addition, the neglecting discipline style of fathers and the reasoning style of mothe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and positive influence, respectively, on children's guil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fearfulness of childre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ir actions of reparation and apology and guilt. Finally, fearfulness moderated influences of mothers' coercive punishment on actions of reparation and apology and fathers' reasoning on internalized conducts. Only fearful children showed not only more actions of reparation and apology when fathers had coercive discipline style but also more internalized behavior when mothers had reasoning discipline style. These results emphasize mutual influences between parental roles and children's personal traits on conscienc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주요어(Key Words) : 부모의 훈육방식(Parental discipline style), 유아의 양심(Preschoolers' conscience), 유아의 두려운 기질 (Preschoolers' fearfulness)

* 이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조은영 (E-mail : choeunyoung@naver.com)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I. 서론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인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규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중요시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 범죄, 부정부패, 연쇄살인, 패륜, 아동성폭행 등의 도덕성 부재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인간내면의 양심과 도덕 발달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는 양심과 도덕성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손경숙, 2001; 이찬숙·현은자, 2008; Zahn-Waxler, Cole, Richardson, Friedman, Michel, & Belouad, 1994)에 근거 한다.

양심과 도덕성 발달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즉 도덕적 추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유아의 도덕성은 인지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지발달론적 접근이 우세해지면서, 국내외 많은 연구들(박수중, 1989; 신지원, 1998; Power, 1988; Walker & Taylor, 1991)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도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도덕적 행동의 기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자들의 관심이 양심 및 통제의 발달에 집중되었다. 즉 아동의 인지능력에서 유아의 정서 및 자기조절 능력과 초기 발달시기에 초점을 두며 연구자들은 초기 양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Cole, Barrett, & Zahn-Waxler, 1992; Kochanska, 1990; Lamb, 1991; 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특히 Kochanska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양심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양심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하였다(Kochanska, Goldman, Devet, Murray, & Putnam, 1994). 첫째, 양심은 정서적 불안감(affective discomfort)으로서, 실제적·비실제적 상황에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각성, 분리불안, 죄의식, 두려움에 의해 영향 받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Kagan, 1989a, 1989b; Kochanska, 1991). 둘째, 양심은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로 보통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충동과 나쁜 행위를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ochanska et al., 1994). 종합해 보면, 양심이란 실제로 나쁜 행동을 했거나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당황하거나 후회, 죄의식을 느끼는 등 불안을 느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상황이나 금지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양심 관련 연구는 종교적, 철학적, 윤리교육 차원에만 국한되거나(오승일, 2004), 여전히 도덕적 판단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이숙희, 2007; 정현주·선미정, 2006), Kochanska의 양심의 개념을 토대로 수행된 연구는 드문

편이다(김수영·허선자, 1998; 조운정, 1999).

한편, 초기의 양심이 32세쯤에 출현하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Kochanska et al., 1994), 연구대상에 대한 관심은 걸음마기와 유아기로 확대되었으며, 이 시기는 양심 발달과 도덕성 습득의 초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강조되었다. 양심 및 도덕성의 관련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박수중, 1989; Hoffman & Saltzstein, 1967), 양육태도(김윤희, 2005; 배헌진, 2000), 훈육방식(정은경, 1996; Hoffman & Saltzstein, 1967), 언어통제유형(우혁기, 2003; 이미순, 2001) 등 가정환경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동의 양심 및 도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어 왔다(조운정, 1999; 홍경선, 2004; Kochanska, Padavich, & Koenig, 1996).

훈육방식과 양심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훈육방식은 주로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Kochanska(1991)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걸음마기에 권위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한 어머니의 자녀는 비권위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한 경우보다 5년 후에 더 낮은 도덕성을 나타내었다. 몇몇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강압적인 훈육은 아동의 내면화된 행동을 손상시켜 양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운정, 1999; 최순자, 2002; Kochanska et al., 199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강압적인 훈육방식이 유아의 죄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가 강압적 처벌을 사용할수록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발견된다(안영자, 1994; 홍경선, 2004). 또한, 부모가 사랑을 철회하거나 무관심한 방임적 훈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이나 불안감 등의 특성과는 정적인 관계(김수영·허선자, 1998)가, 감정이입이나 도덕적 판단능력과 같은 행동과는 부적인 관계(김경희, 2000; 김희진, 2003; 최순자, 2002)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외에 논리적 설명과 같은 훈육방식은 아동의 양심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을 훈육할 때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아동들이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욱 높은 인지적 개념 능력을 획득하여 성숙한 도덕적 과정이 발달되었으며(Henry, 1980), 어머니들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감정에 대해 언급해주는 대화방식이 유아의 도덕성과 내면화에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Laible, 2004).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논리적인 설명을 할수록 유아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잘하고, 죄의식이 높으며, 내면화된 행동이 많이 나타내었다(김윤희, 2005; 홍경선, 2004).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에 근거할 때, 유아의 양심 발달 수준은 부모가 강압적 처벌을 하거나 방임적 훈육을 할수록 낮고 논리적 설명을 이용할수록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과 같은 훈육방식 요인들이 유아의 양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양심이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어머니와 직결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존재와 태도는 유아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지명숙, 1988; 최성숙, 1996)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유아는 높은 도덕성과 친사회성을 보였으며(김정신, 1999; 하정아, 1997), 아동의 도덕성은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이 인성적일 때 가장 높고, 명령적일 때 가장 낮았다(우혁기, 2003)는 연구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이와 같이 유아의 양심을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문 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의 양심 발달의 관련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식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양심 발달의 근원을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나 자기조절력 및 초기발달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해, 아동의 기질은 양심의 또 다른 주요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다(조운정, 1999; 홍경선, 2004; Kagan, 1989a, 1989b; Kochanska, 1997; Kochanska et al., 1994; Reznick, 1989). 다양한 기질 특성 가운데 반응성, 불안, 두려움은 양심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Kagan, 1989a, 1989b; Reznick, 1989), Kochanska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은 두려움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양심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Kochanska, 1995, 1997; Rothbart, Ahadi, & Hershey, 1994)을 통해 아동의 기질 특성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에 대한 반응경향을 양심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이처럼 두려운 기질이 양심의 주요한 선행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개념화하고 정의하기엔 선행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두려움을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은 기질 특성에 기초를 둔 아동의 행동억제(박성연 · Rubin · 정옥분 · 윤종희 · 도현심, 2007;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나 부정적 정서차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두려움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양심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양심의 정서적 불안감 요소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두려운 기질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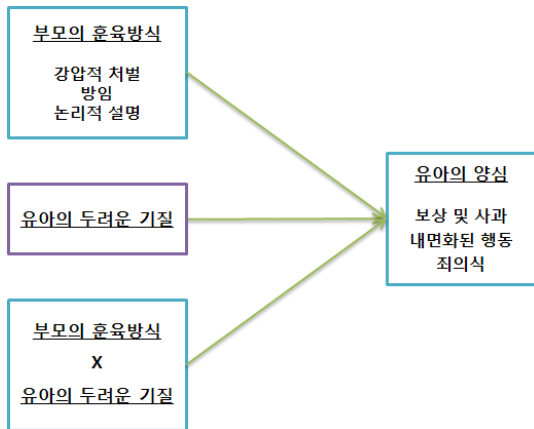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양심 연구의 최근 경향 중 또 다른 하나는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사회화의 영향을 양심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생애 초기의 양심에 관한 연구에서 두려운 기질과 양심간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규명하고자 시도한 Kochanska(1991)에 따르면, 영아기에 측정된 어머니의 권력 지향적인 양육방식과 유아의 순응성 수준은 6년 후에 측정된 양심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 각성에 상당히 예민한 유아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이에, Kochanska(1993)는 양심 발달에서 기질과 훈육방식의

효과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유아의 기질이나 부모의 훈육방식은 유아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만 부모의 훈육방식이 양심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2-6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두려움이 많은 아동의 경우는 걸음마기 때의 강압적이지 않은 온화한 훈육이 5세 때의 긍정적인 양심발달을 예측한 반면에, 두려움이 없는 아동의 경우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Kochanska, 1995, 1997). 이는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양심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가정하게 한다. 개인의 발달에 있어, 환경의 영향은 유기체의 개인적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발달의 유기체적 특수성 이론(Wachs & Gandour, 1983)에 근거해 볼 때 양심 발달에 있어 훈육방식과 기질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양심을 주제로 한 선행 국내 연구들 가운데 이러한 관련성을 살펴본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편, 지금까지의 양심과 도덕성 연구는 아동의 연령과 성에도 관심을 가져왔는데, 연구자들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도덕 판단력 및 내면화된 행동이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손은경, 2002; 정은경, 1996; Kochanska, 1997; 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이는 양심 연구의 근간이 되는 많은 도덕성 연구들이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발달론적 입장에서 수행된 점에 근거한다. 이밖에도 아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규칙을 지키기 위한 자기통제 능력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김재희 · 한세영 · 김연화, 2007) 내면화 행동도 더 많이 나타내었다(Kochanska, 1997). 즉, 인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보다 성숙한 양심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양심이나 도덕성 발달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Piaget(1932)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Kohlberg(1969)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단계나 발달 속도 면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성숙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차와 관련하여, Kochanska(2002)는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양심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Hamachek(1977)는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기 양심 발달의 성차에 관해 다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라도, 유아기는 성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서 유아는 가정, 교육기관 및 주변 사회로부터 성에 대한 개념이나 규칙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May & Jane, 1999). 이와 같이, 유아의 연령과 성별이 유아의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령과 성을 통제하였다.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각각 유아의 양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비롯하여, 부모



<그림 1>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에 대한 연구모형

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 <연구문제 1> 부모의 훈육방식은 유아의 양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두려움은 양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움은 중재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5곳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250명의 만 3-6세 유아들(평균: 5.0세, 표준편차: .84)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령층은 아동의 초기 양심이 만 3세부터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들(Emde, Biringen, Clyman, & Oppenheim, 1991; Kochanska et al., 1994)에 따라 초기 양심 발달의 관련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26명(50.4%), 여아가 124명(49.6%)이었으며, 연령은 만 3세가 11명(4.4%), 4세가 55명(22%), 5세가 106명(42.4%), 6세가 78명(31.2%)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100명(40%), 69명(27.6%)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각각 132명(52.8%)과 131명(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137명

(54.8%)과 128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115명(46%),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158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월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2명(12.8%), 300-400만원 미만이 41명(16.4%), 400-500만원 미만이 45명(18%), 500-600만원 미만이 42명(16.8%)이었으며, 그 외 600만원 이상과 무응답이 각각 50명(20%)과 33명(13.2%)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 및 양심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유아의 두려운 기질 및 양심은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각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부모의 훈육방식

부모의 훈육방식은 Clazada와 Eyberg(2002)의 부모의 양육 방식척도(Parenting Style and Dimension: PSD)를 번안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이동희(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강압적 처벌(10문항), 방임(6문항), 논리적 설명(6문항)의 3개 하위 요인(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강압적 처벌의 경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가한다', '화가 나면 아이에게 화풀이 한다' 등을, 방임은 '아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도 내버려 둔다', '아이를 실제로 혼내기보다는 아이를 협박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등을, 논리적 설명은 '아이가 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아이가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준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 방식 모두 '방임' 요인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1개의 동일한 문항이 제외되어, 각 21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강압적 처벌'은 .80과 .84, '방임'은 .70과 .71, '논리적 설명'은 .76과 .80이었다.

2) 유아의 두려운 기질

유아의 두려운 기질은 Rothbart(1993)의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가운데 두려움 요인(12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BQ는 3-7세 유아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15개 하위요인(1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기질 요인들 가운데 두려움 요인만을 사용한 것은 유아의 기질 중 반응성, 두려움, 불안, 각성은 양심의 정서적인 불안 성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Kagan, 1989a, 1989b; Reznick,

1989), 이 가운데 특히 두려운 성향이 애착안정성 또는 온화한 훈육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양심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Kochanska, 1997)에 근거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 '높은데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역코드)' 등이 포함된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71이었다.

3) 유아의 양심

유아의 양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Kochanska 등(1994)이 제작한 양심척도(Conscience Measure)를 조운정(1999)이 변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보상 및 사과(15문항), 내면화된 행동(7문항), 죄의식(4문항), 도덕적 수정(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보상 및 사과 요인에는 '고통 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려고 한다', '무엇인가 말썽을 부리고 나면 용서해주길 요청한다' 등이, 내면화된 행동 요인은 '어른이 없어도 이전에 금지시킨 행동은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잘못을 저지르기 직전에 스스로 멈추려고 한다' 등이 포함된다. 죄의식 요인의 문항의 예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마다 책임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다가 들리면 후회나 죄의식을 느낀다' 등이, 도덕적 수정 요인의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다른 아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을 받는 것 같다' 등이 포함된다.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도덕적 수정 요인(4문항)의 경우 .38이라는 낮은 신뢰도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죄의식 요인에서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의 문항('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상 및 사과, 내면화된 행동, 죄의식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보상 및 사과, 내면화된 행동 및 죄의식 요인 각각 .77, .81 및 .66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된 서울시 E·K·S구에 위치한 5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기관을 방문하였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총 440쌍의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각각 263부(회수율 60%)와 284부(회수율 65%)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부실한 응답을 포함한 질문지(11부)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응답한 259쌍의 질문지가 분석 가능한 자료에 속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 스크리닝(screening)을 실시한 결과, 이상치(outlier)¹⁾가 있는 자료

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0쌍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각 변인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각각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유아의 연령은 보상 및 사과($r=.16, p<.05$), 내면화된 행동 ($r=.18, p<.01$) 및 죄의식($r=.1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연령이 많을수록 유아의 보상 및 사과, 내면화된 행동 및 죄의식 수준이 높았다. 아버지의 강압적 처벌은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r=-.19, p<.01$)과, 방임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r=-.19, p<.01$), 내면화된 행동($r=-.15,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논리적 설명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r=.18, p<.01$), 내면화된 행동($r=.1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훈육방식의 경우, 강압적 처벌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r=-.14, p<.05$), 내면화된 행동($r=-.36, p<.001$)과, 방임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r=-.31, p<.001$), 내면화된 행동($r=-.2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r=.40, p<.001$), 내면화된 행동($r=.1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두려운 기질은 보상 및 사과($r=.15, p<.05$), 죄의식($r=.1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연구 변인들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강압적 처벌($t=3.64, p<.001$), 유아의 두려운 기질($t=-2.36, p<.05$), 내면화된 행동($t=-2.07, p<.05$), 죄의식($t=-2.38, p<.05$)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남이는 여아에 비해 아버지의 강압적 처벌이 높고 두려운 기질과내면화된 행동 및 죄의식 수준이 낮았다. 앞서 자료분석에서 언급한

1) 표준화 점수(Z-score)가 ± 3 이상인 경우를 이상치로 봄(배병렬, 2007).

<표 1>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 편차

(N=25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										
2. 아버지의 강압적 처벌	.00	-									
3. 아버지의 방임	-.06	.17**	-								
4.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	.01	-.39***	-.39***	-							
5.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	.06	.41***	.18**	-.16*	-						
6. 어머니의 방임	-.12	.11	.39***	-.15*	.28***	-					
7.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	.04	-.05	-.20**	.34***	-.34***	-.35***	-				
8. 두려운 기질	-.04	-.11	-.03	.09	.05	.00	.07	-			
9. 보상 및 사과	.16*	-.07	-.19**	.18**	-.14*	-.31***	.40***	.15*	-		
10. 내면화된 행동	.18**	-.19**	-.15*	.14*	-.36***	-.20**	.19**	-.05	.32***	-	
11. 죄의식	.19**	.01	-.11	-.03	-.01	.01	.09	.16**	.42***	.21**	-
평균(M)	5.00	2.06	1.88	3.15	2.26	1.79	3.25	2.70	3.08	2.78	2.55
표준편차(SD)	.84	.45	.47	.40	.46	.43	.39	.38	.29	.47	.53

* $p<.05$, ** $p<.01$, *** $p<.001$.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VIF와 TOL을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03-1.55)와 0.1이상(0.67- 0.96)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 -Watson²⁾의 검정 통계량은 1.851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양심의 하위요인인 보상 및 사과, 내면화된 행동, 죄의식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2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훈육방식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유아의 연령과 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방임은 보상 및 사과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20, p<.01$), 논리적 설명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34, p<.001$). 즉, 어머니가 방임적으로 훈육할수록 유아는 잘못된 행동을 한 후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는 등의 보상 및 사과를 덜 하였으며,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훈육할수록 그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유아의 연령 및 성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훈육

방식 요인들의 보상 및 사과에 대한 설명력은 20%였다.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이 투입된 2단계에서 유아의 연령은 보상 및 사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유아의 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여아는 남아에 비해 보상 및 사과를 더 나타내었다. 부모의 훈육방식의 경우, 어머니의 훈육방식만이 논리적 설명($\beta=.33, p<.001$)과 방임($\beta=-.19, p<.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20%였다. 즉, 부모의 훈육방식 중 유아의 보상 및 사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이었다.

둘째,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아의 연령과 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만이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어(각각 $\beta=-.15, p<.05$ 과 $\beta=-.34, p<.001$), 부모가 강압적인 처벌을 할수록 유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자발적인 자기통제를 하는 등의 내면화된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 아버지 및 어머니 훈육방식 요인들의 내면화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4%와 14%이었다.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훈육방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은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면화된 행동을 더 나타내었고, 유아의 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훈육방식 경우,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beta=-.33, p<.001$)만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5%이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만이 유의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보상 및 사과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2) Durbin-Watson test 값이 2에 근접할 경우, 자기상관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김연형, 2006).

<표 2> 유아의 양심에 대한 부모의 훈육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250)

독립변인	보상 및 사과		내면화된 행동		죄의식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연령	.15*	.14*	.17**	.17**	.18**	.17**
성	.09	.08	.11	.07	.13*	.13*
아버지의 훈육방식						
강압적 처벌		.02		-.15*		.03
방임		-.13		-.10		-.13
논리적 설명		.14		.04		-.07
R ²	.03	.08	.05	.09	.05	.07
F	4.05*	4.01**	5.86**	4.67***	6.96**	3.59**
(df)	(2,247)	(5,244)	(2,247)	(5,244)	(2,247)	(5,244)
연령	.15*	.10	.17*	.18**	.18**	.18**
성	.09	.14*	.11	.12*	.13*	.13*
어머니의 훈육방식						
강압적 처벌		.03		-.34***		.01
방임		-.20**		-.08		.05
논리적 설명		.34***		.05		.11
R ²	.03	.23	.05	.19	.05	.07
F	4.05*	14.1***	5.86**	11.74***	6.96**	3.38**
(df)	(2,247)	(5,244)	(2,247)	(5,244)	(2,247)	(5,244)
연령	.15*	.10	.17**	.18**	.18**	.18**
성	.09	.13*	.11	.11	.13*	.13
아버지 훈육방식						
강압적 처벌		.00		-.00		.00
방임		-.03		-.02		-.16*
논리적 설명		.03		.05		-.13
어머니 훈육방식						
강압적 처벌		.03		-.33***		.01
방임		-.19**		-.07		.10
논리적 설명		.33***		.03		.15*
R ²	.03	.23	.05	.20	.05	.09
F	4.05*	8.82***	5.86**	7.39***	6.96**	2.88**
(df)	(2,247)	(8,241)	(2,247)	(8,241)	(2,247)	(8,241)

주) 유아의 성은 더미변수화 함(남아=0, 여아=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유아의 죄의식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양자를 동시에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유의적이었다. 통제변인으로서 유아의 연령은 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죄의식을 더 많이 나타내었으며, 유아의 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훈육방식의 경우, 아버지의 방임($\beta = -.16, p < .05$)과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beta = .15, 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설명력은 4%였다. 즉, 아버지가 방임적일수록, 유아는 죄의식을 덜 느꼈으며, 어머니가 논리적 설명을 할수록 유아는 죄의식을 더 많이 느꼈다.

3.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양심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양심의 하위요인

을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 유아의 두려운 기질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양심의 하위요인 중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의 영향력은 유의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상 및 사과를 더 나타낸 반면, 유아의 성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의 두려운 기질은 보상 및 사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 = .15, p < .05$), 두려움이 많을수록 유아는 보상 및 사과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 유아의 연령 및 성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보상 및 사과를 설명하는 정도는 2%이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은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면화된 행동을 더 나타낸 반면, 유아의 성과 두려운 기질은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연령은 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죄의식을 더 나타내었으나, 유아의

<표 3> 유아의 양심에 대한 두려운 기질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250)

독립변인	보상 및 사과		내면화된 행동		죄의식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연령	.15*	.16*	.17**	.17**	.18**	.19**
성	.09	.06	.11	.12	.13*	.10
두려운 기질		.15*		-.06		.16*
R2	.03	.05	.05	.05	.05	.08
F	4.05*	4.53**	5.86**	4.20**	6.96**	6.85***
(df)	(2,247)	(3,246)	(2,247)	(3,246)	(2,247)	(3,246)

주) 유아의 성은 더미변수화 함(남아=0, 여아=1).

* $p<.05$, ** $p<.01$, *** $p<.001$.

<표 4> 보상 및 사과에 대한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250)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연령	.15*	.17**	.16*
성	.09	.06	.07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A)		-.16*	.64
유아의 두려운 기질(B)		.15*	.69**
A × B			-.99*
R2	.03	.08	.10
F	4.05*	5.15**	5.11***
(df)	(2,247)	(4,245)	(5,244)

주) 유아의 성은 더미변수화 함(남아=0, 여아=1).

* $p<.05$, ** $p<.01$, *** $p<.001$.

성은 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아의 두려운 기질은 죄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며($\beta=.16, p<.05$), 그 설명력은 3%였다. 즉, 두려움이 많은 유아일수록 죄의식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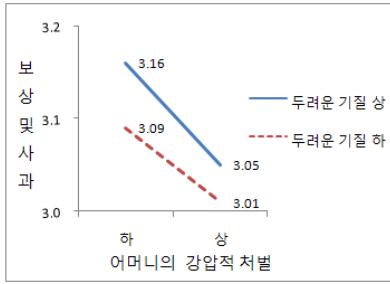
4.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2단계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 요인들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을, 3단계에서는 양변인들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려운 기질의 중재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서, 독립변인의 하위요인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유아의 보상 및 처벌과 내면화된 행동 각각에 대해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간과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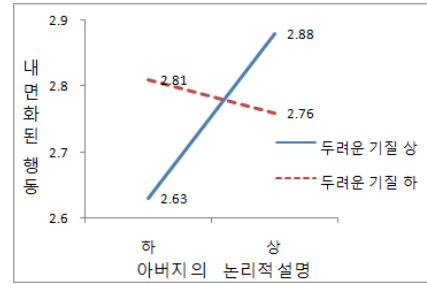
<표 4>에서와 같이, 1단계, 2단계 및 3단계에서 각각 유아의 연령 및 성,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 그리고 양변인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결과, 3단계에서 유아

의 연령($\beta=.16, p<.05$), 두려운 기질($\beta=.69, p<.01$) 그리고 강압적 처벌과 두려운 기질간의 상호작용($\beta=-.99,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연령과 성의 영향력을 제외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7%이었다. 이어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두려운 기질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 및 미만 집단, 즉 두려움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유아의 연령 및 성을 통제한 후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두려움이 많은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19, p<.05$), 강압적 처벌이 높을수록 보상 및 사과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두려움이 적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beta=-.12, p>.05$).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각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다음으로,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 및 성을 투입한 후,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 및 유아의 두려운 기질과 양변인간의 상호작용



<그림 2>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유아의 보상 및 사과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그림 3>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과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표 5> 내면화된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250)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연령	.17**	.17**	.16**
성	.11	.11	.12
아버지의 논리 설명(A)		.14*	-.79
유아의 두려운 기질(B)		-.07	-1.10*
A × B			1.45*
R2	.05	.07	.09
F	5.86**	4.40**	4.60***
(df)	(2,247)	(4,245)	(5,244)

주) 유아의 성은 더미변수화 함(남아=0, 여아=1).

* $p<.05$, ** $p<.01$, *** $p<.001$.

변인을 투입한 결과, 3단계에서 유아의 연령($\beta=.16, p<.01$), 두려운 기질($\beta=-1.10, p<.05$) 그리고 논리적 설명과 두려운 기질간의 상호작용($\beta=1.45, p<.05$)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유아의 연령과 성의 영향력을 제외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4%이었다. 이어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려움이 많은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26, p<.01$), 논리적 설명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행동 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두려움이 적은 경우,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은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01, p>.05$).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각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IV.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양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두려운 기질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과 같은 훈육방식이 유아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버지 및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 등 각 하위요인은 아버지의 강압적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의 보상 및 사과와 개별적으로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 하위요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어머니의 방임 및 논리적 설명만이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덜 방임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수록 유아의 보상 및 사과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방임할수록 아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정과 사과와 같은 행동을 덜 나타낸다는 연구결과(홍경선, 2004)나 어머니가 논리적 설명에 의한 훈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사과를 하거나 그 피해를 스스로 보상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김유희, 2005; 김재희 외, 2007; 홍경선, 2004; Hoffman, 1963a, 1963b, 1975)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유도적 양육이 유아의 사회·도덕성 발달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안영자, 1994; 최성숙, 1996; 최순자, 2002)이나 유아의 감정이입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김지신, 1986; Mussen, 1980)과도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유도적, 설득적 훈육은 유아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녀의 행동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저항을 최대한 줄인다는 연구결과(Hoffman, 1984)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에 통제를 가해야 할 때, 유아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행동 통제에 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유아 스스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유아는 부모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느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적 훈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부모가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사과하려 하지 않으며, 무관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달리,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압적 처벌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하고, 사과하는 행동이 덜 발달된다는 몇몇 선행 연구결과들(홍경선, 2004; Kochanska et al., 1996)과 일치하지 않는 반면, 조운정(1999)과는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강압적 처벌보다는 앞서 발견되었듯이 논리적 설명이나 대화를 통한 방식이 유아에게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방임과 논리적 설명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이 애정절화나 권력행사보다 자녀의 양심 발달에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Brody & Shaffer, 198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은 어머니의 존재와 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결과들(지명숙, 1988; 최성숙, 1996)을 지지하는 것으로,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는 유아기 아동의 양심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 등 각 하위요인은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세 가지 하위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는 강압적 처벌만이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압적인 처벌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자발적인 자기 수정 또는 자기 통제를 하는 내면화된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강압적 처벌 또는 권력행사가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을 방해하여 양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조운정, 1999; Hoffman, 1975; Kochanska et al., 1996)을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강압적 훈육방식, 권위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의 과정에 속하는 자기통제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문신 · 김광웅, 2003; 안미경, 1996; 이경님, 2001; Olson, Bates, & Bayles, 1990; Silverman & Ragusa, 1990), 만족지연 능력을 감소시킨다(이미라, 1999, Houck & LeCuyer-Maus, 2004)는 연구결과들과도 유사하다. 이외에도 부모가 신체적 처벌과 언어적 위협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낮은 도덕적 판단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경희, 2000; 김희진, 2003; 최순자, 2002; Hoffman & Saltstein, 1967)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강압적 처벌이 방임과 논리적 설명에 비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상대적으로 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강압적 훈육방식은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내면화된 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강압적 훈육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지만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Hoffman, 1970, 1988)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부모가 강압적으로 유아를 훈육할 때 오히려 유아는 분노나 적대감만 느끼기 쉽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심 발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 즉 양심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훈육방식보다는 부모가 확고한 훈육방침을 정해 두고 이를 단호하게 시행하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상호이해를 토대로 한 훈육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같이 강압적 처벌의 부정적 영향력은 내면화된 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훈육방식의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만이 유의하였던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결과이기도 하며, 유아기에 있어 아동의 도덕성을 내면화해 가는 환경으로서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Eisenberg, 1995)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처럼 아버지의 훈육방식보다는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양심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유아의 양심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각각 유아의 죄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자를 동시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흥미롭게도 아버지의 방임과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가 방임할수록 유아는 죄의식이 낮았으며, 어머니가 논리적인 설명을 할수록 유아의 죄의식이 높았다. 전자의 경우, 아버지의 방임과 죄의식에 대한 연구가 드물어 비교가 쉽지 않지만,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유아는 높은 도덕성과 함께 죄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정신, 1999)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후자의 경우는 부모가 논리적 설명을 사용하여 훈육할수록 아동의 죄의식이 높았으며(안영자, 1994; 홍경선, 2004), 죄의식 발달은 부모의 거부나 처벌보다는 애정적인 양육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Zahn-Waxler & Kochanska, 1990)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이 유아의 죄의식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홍경선, 2004)와 일치하고,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합리적일 때, 아동의 죄의식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결과(윤선희, 2007)와도 유사하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대화방식이 처벌이나 강력한 압력으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통해 양심을 발달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두려운 기질과 양심간의 관계에 있어, 유아는 두려움이 많을수록 보상 및 사과와 죄의식이 더 높았다. 이는 두려움이 많은 아동이 양심 측정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Kochanska, 1995; Kochanska et al., 1994), 속임수를 덜 사용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연구결과(Asendorpf & Nunner-Winkler, 1992)를 지지한다. 또한 기질상 두려움의 정서성을 가진 유아나 반응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죄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김수영 · 허선자, 1998; 홍경선, 2004; Einstein & Lanning, 1998)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이 높은 유아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내적인 불안감을 더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이나 권력행사 같은 외적인 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더 쉽게 내적인 자성을 한다는 연구결과(Dienstbier, 1984)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두려움이 많은 아동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쉽게 사과를 하고,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나쁜 행동을 한 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 앞서 서술한 결과에서 유아의 죄의식에 부모의 어떠한 훈육방식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정서적 측면의 죄의식에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 측면의 두려움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이 보상 및 사과와 죄의식과는 달리 내면화된 행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내면화 행동은 자기통제력 발달과 관련된다 는 연구결과(김문신 · 김광웅, 2003)에서 볼 수 있듯이, 내면화 행동을 보상 및 사과나 죄의식과는 달리 유아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음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과 관련하여, 유아의 두려운 기질은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그리고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였다. 전자의 경우, 두려움이 적은 유아는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보상 및 사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두려움이 많은 유아는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높을수록 보상 및 사과의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 후자의 경우, 두려움이 적은 유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이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두려움이 많은 유아는 아버지가 논리적 설명을 할수록 내면화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적응력,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Cameron, 1978; Thomas & Chess, 1977)과 유사한 맥락으로, 특히 아동의 기질은 유아의 양심에 주효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및 훈육방식의 영향을 중재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

(Kochanska, 1995, 1997)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두려운 기질 및 양심을 함께 고려한 선행 연구가 매우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유아의 두려운 기질은 어머니의 온화한 훈육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Kochanska(1997)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영아기에 측정된 어머니의 권력행사와 유아의 순응성 수준은 6년 후의 양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두려움의 각성에 예민한 유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Kochanska, 1991)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Kochanska(1997)에 의하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나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높은 불안 수준을 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이 많은 유아의 경우는 온화한 훈육을 할수록 양심이 효과적으로 발달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국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어머니의 높은 강압적 처벌은 두려움이 많은 유아의 보상 및 사과의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은 두려움이 많은 유아의 내면화 행동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두려운 기질은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보상 및 사과간의 관계에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이 유아의 보상 및 사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키지만, 아버지의 논리적 설명과 내면화된 행동간의 관계에서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내면화된 행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두려움이 적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훈육방식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대, 두려움이 적은 유아의 경우, 강압적 처벌, 방임, 논리적 설명 등과 같은 부모의 훈육방식 이외의 다른 부모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두려움이 적은 아동의 경우에는 두려운 기질이 어머니와 유아간의 안정된 애착과 상호작용을 하여 양심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ochanska, 1997)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간의 반응적이고 친밀하고 협동적인 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망과 의무감을 갖게 하여 성공적인 양심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양심 발달에 있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 측면에서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유아의 두려운 기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모의 훈육방식의 영향력은 유아의 두려움이 많을 때만 발견되어, 동일한 훈육방식이라 할지라도 유아의 두려움 정도에 따라 유아의 양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두려움이 많은 유아의 경우에 어머니가 강압적 처벌을 덜 할수록 유아의 보상 및 사과 수준이 더 높았으며, 아버지가 논리적 설명을 사용할수록 내면화된 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결과를 볼 때,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하위요

인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양심을 어머니 보고용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보고자와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 외에도 이야기식 측정도구와 실험을 통해 유아의 양심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Kochanska, 1995; Kochanska et al., 1994)과 같이 보다 다양한 측정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중 유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경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려운 기질 외에도 유아의 충동성, 활동성, 억제통제성 또한 유아의 양심 및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수영 · 허선자, 1998; 홍경선, 2004; Kochanska et al., 1994)에 근거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양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의 여러 하위요인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대상수로 인해 유아의 연령과 성을 통제하는데 고쳤다. 이러한 방법은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연령별, 성별 결과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좀 더 많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유아의 연령 및 성별로 양심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국내 아동발달 분야에서 흔하지 않은 연구주체인 유아의 양심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외의 경우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견함으로써 환경적 특성으로서의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에서 타고난 특성인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양심의 선행 변인의 주효과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유아의 양심에 대한 훈육방식과 두려운 기질의 상호작용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둘째, 유아의 양심 및 도덕성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측면에서만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 역시 결론적으로는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을 몇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경희(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81-93.
 김문신 · 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김수영 · 허선자(1998). 아동의 양심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어머니의 양육 행동, 아동의 가정환경 및 아동의 기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8(1), 243-259.
 김연형(2007). **SPSS와 사회과학 자료분석**. 서울: 교우사.
 김윤희(2005).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성, 기질 및 도덕적 자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희 · 한세영 · 김연화(2007). 어머니와 교사의 합리적 지도가 유아의 도덕적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연구논총**, 11(2), 1-19.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신(1986).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2003).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감성 지능 및 도덕적 판단능력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 · Rubin, K · 정옥분 · 윤종희 · 도현심(1997). 아동의 성,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순종 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17.
 박수중(1989).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들의 도덕성 판단능력의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이론과 실제**. 서울: 청람출판사.
 배현진(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도덕적 판단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경숙(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도덕적 판단 및 공격성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은경(2002).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원(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공격성향 및 도덕적 판단능력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자(1994).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승일(2004). **하이데거에 있어서 양심에 관한 고찰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혁기(2003). 언어적 통제유형에서 부모간 일치여부가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1), 77-93.
 윤선희(2007). **모의 양육태도 및 죄책감 경향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

- 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동희(2003). 유아의 기질, 부모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순(2001). 부·모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도덕성 발달 수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2007). 컴퓨터 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판단 및 유아발달수준의 차이. **아동교육**, 16(4), 33-44.
- 이찬숙·현은자(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 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23-238.
- 정은경(1996). 어머니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 판단력의 관계.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선미정(2006). 아동의 거짓말 개념정의 및 도덕 판단에 대한 겸손함의 효과. **아동교육**, 15(4), 243-258.
- 조윤정(1999). 유아의 양심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명숙(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숙(199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도덕성 발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자(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만 3세에서 6세 아의 도덕적 행동의 검토. **교육심리연구지**, 16(3), 197-219.
- 하정아(1997).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의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선(2004).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endorpf, J. B., & Nunner-Winkler, G. (1992). Children's moral motive strength and temperamental inhibition reduce their immoral behavior in real moral conflicts. *Child Development*, 63, 1223-1235.
- Brody, G. H., &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Cameron, J. R. (1978). Parent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Initial temperament, parental attitude, and the incidence and form of behavior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 140-147.
- Cla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Cole, P. M., Barrett, K. C., & Zahn-Waxler, C. (1992). Emotion displays in two-year-olds during mishaps. *Child Development*, 63, 314-324.
- Dienstbier, R. A. (1984). The role of emotion in moral socialization. In Izard, J. Kagan, & Zajonc, R. B. (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s*(484-5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nstein, D., & Lanning, K. (1998). Shame, guilt, ego development,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6(4), 555-582.
- Eisenberg, N. (1995). Prosocial development: A multifaceted model. In Kurtines, W. & Gewirtz, J.(Eds.). *Moral Development*. Boston: Allyn and Bacon.
- Emde, R. N., Biringen, Z., Clyman, R. B., & Oppenheim, D. (1991). The moral self of infancy: Affective and procedural knowledge. *Developmental Review*, 11, 251-270.
- Hamachek, D. E. (1977). *Human dynam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Henry, R. M. (1980).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reasoning" in the socialization of young children. *Human Development*, 23, 105-125.
- Hoffman, M. L. (1963a). Child rearing practices and moral development: Generalizations from empirical research. *Child Development*, 34, 295-318.
- Hoffman, M. L. (1963b).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consideration for others. *Child Development*, 34(3), 573-588.
- Hoffman, M. L. (1970). Conscience,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techniques. *Human Development*, 13, 90-126.
- Hoffman, M. L. (1975). Moral internalization, parental power, and the nature of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2), 228-239.
- Hoffman, M. L. (1984). Empathy, its limitations, and its role in a comprehensive moral theory. In Kurtines, W. M. & Gewirtz, J. L.(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88). Moral development. In Bornstein, M. H. & Lamb, M.(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497-548). Hillsdale, NJ: Erlbaum.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 Houck, G. M., & LeCuyer-Maus, E. A. (2004). Maternal limit setting during toddlerhood, delay of gratification, and behavior problems at age fiv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 28-46.
- Kagan, J. (1989a).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1989b). The concept of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Reznick, J. S.(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1-2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chanska, G. (1990). Maternal beliefs as long term predictor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51, 1934-1943.
- Kochanska, G. (1991). Socialization and temperament in the development of guilt and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2, 1379-1392.
-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 325-347.
- Kochanska, G. (1995).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discipline, and security of attachment: Multiple pathways to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597-615.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28-240.
- Kochanska, G. (2002). Committed compliance, moral self, and internalization: A mediation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339-351.
- Kochanska, G., Aksan, N., Knaack, A., & Rhines, H. (2004).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conscience: Early security as moderator. *Child Development*, 75, 1229-1242.
- Kochanska, G., Goldman, M., Devet, K., Murray, K., & Putnam, S. P. (1994). Maternal reports of conscience development and temperament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852-868.
- Kochanska, G., Padavich, D. L., & Koenig, A. L. (1996). Children's narratives about hypothetical moral dilemmas and objective measures of their conscience: Mutual relation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Child Development*, 67, 1420-1436.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Goslin, D. A.(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347-480). Chicago: Rand McNally.
- Laible, D. J. (2004). Mother-child discourse surrounding a child's past behavior at 30 months: Links to emotional understanding and early conscience development at 36 months. *Merrill-Palmer Quarterly*, 50(20), 979-992.
- Lamb, S. (1991). First moral sense: Aspects of and contributors to beginning morality in the second year of life. In Kurtines, W. M. & Gewirtz, J. L.(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2. Research* (171-189). Hillsdale, NJ: Erlbaum.
- May, L. T., & Jane, A. R. (1999). The influence of children's literature on gender role perceptions: A reexamin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26(3), 155-159.
- Mussen, P. H. (1980). The roots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ucci, P. H.,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 cognitive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317-334.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 cognitive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317-334.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Y.: Free press.
- Power, S. I. (1988). Moral judgement development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Moral Education*, 17, 209-219.
- Reznick, J. S. (1989)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thbart, M.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Rubin, K., Hastings, P., Stewart, S., Henderson, H.,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rearing*. Evanston, IL: Row Peterson.
- Silverman, I.,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n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s.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5, 435-473.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Wachs, T., & Gandour, M. (1983). Temperament, environment, and six-month cognitive-intellectual development: A test of organismic specificity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6, 135-152.
- Walker, L. J., & Taylor, J. H. (1991). Family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2, 264-283.
- Zahn-Waxler, C., Cole, P. M., Richardson, D. T., Friedman, R. J. Michel, M. K., & Belouad, F. (1994). Social problem solving in disruptive preschool children: Reactions to hypothetical situations of conflict and distress. *Merrill-Palmer Quarterly*, 40, 98-119.
- Zahn-Waxler, C., & Kochanska, G. (1990). The origins of guilt. In Thompson, R. A.(Ed). *The 36th annual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Socioemotional development*(183-257). Dienstbier, R. A.(Series 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 (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 접수일 : 2010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10년 0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24일